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3. 일치와 중기가 있는 삶을 산다.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국내외 목회자 위한 신학세미나 열린다

- 목회자 신학 세미나 • 김치 신학 세미나 -

오는 4월9일(월) 부터 6월11일(월)까지 10주간 동안 매주 월요일 오후2시 부터 5시 20분까지 제19학기 목회자 신학 세미나가 “21세기 교회와 전도의 세 패러다임”을 주제로 우리 교회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다.

제1교시는 이중윤 목사의 시편 연구가 계속되고 제2교시는 주제에 따른 강사 10분이 매주 강의를 하게 된다.

도표①

제1교시(2:00-3:30 p.m)		
시편 연구	이중윤 목사 (서울교회)	
제2교시(3:50-5:20 p.m)		
4월 9일	21세기 세계선교의 방향과 그 대안	조종남, 명지대
4월 16일	종교다원주의와 예수의 유일성	이봉주, ACTS
4월 23일	교회와 선교의 상관관계	강승삼, 동신대
4월 30일	교회와 para-church	전호진, 고신총
5월 7일	자비량 선교와 교회	이용원, 서울성신대
5월 14일	한국 교회의 세계 선교 사명	한철하, ACTS
5월 21일	화상 예배와 사이버 세계의 전도 전략	허호익, 대원신대
5월 28일	포스트 모던 세계에서 예수의 정체성	이승구, 국제신대
6월 4일	그리스도와 이데올로기의 극복	한승홍, 장신대
6월 11일	개 교회의 전도전략	홍용조, 양의문교회

(목회자 세미나 시간표는 도표①과 같다.)

한편 6월6일(수) 부터 15일(금)까지 10일간 제9차 KIMCHI신학 세미나가 아프리카 4개국 차드, 콩고, 카메룬, 중앙 아프리카 교계 지도자를 초청하여 우리 교회 비전 홀에서 열린다. 이들 4개국은 불어권으로 이들의 시간표는 도표②와 같다.

도표②

Opening Service Sermon- The Primacy of the Local Church in World Evangelization / 이중윤	
6/6 (Wed) a.m 10:00 - 12:00	LECTURE 1 - Brief History of Korean Church / 이만열
6/7(Thu) a.m 10:00 - 12:00	LECTURE 2 - Biblical Principles of Church Growth(Renewal) / 이중윤
6/8 (Fri) a.m 10:00 - 12:00	LECTURE 3 - Upper Room(Small Group) Movement for Church Growth/ 김삼복
6/9 (Sat) a.m 10:00 - 12:00	LECTURE 4 - Prayer Life of Korean Church / 김병혁
6/11 (Mon) a.m 10:00 - 12:00	LECTURE 5 - African Culture & Gospel - / Wilfred. T. W. Fon
6/12 (Tue) a.m 10:00 - 12:00	LECTURE 6 - Practical Application of Church Growth Principles/ 이중윤
6/13 (Wed) a.m 10:00 - 12:00	LECTURE 7 - Socio-Cultural Background of Korean Church Growth/ 이원철
6/13 (Wed) p.m 1:00 - 2:30	LECTURE 8 - Strategies & Practice of Evangelism/ 이광순
6/14 (Thu) a.m 10:00 - 12:00	LECTURE 9 - Critical Studies of the Religious Pluralism/ 김영한
6/14 (Thu) p.m 1:00 - 2:30	LECTURE 10 - Grass - Root Evangelism / 김인수

지난주 이모저모



아기성장에 관한 새 가정부 특강, 강사-이윤진 권사



새 예배당 입당감사 미술전 개막



중, 고등부 수련회- 특강도 듣고 요리도 하고...

3월 중 행사 계획

- 청년부 수련회 : 2.28-3.1
- 스데반회 수련회 : 2.28-3.1
- 사랑부 수련회 : 3. 1 (목)
- 정기 제직회 : 3. 4 (주)
- 여전도회 헌신예배 : 3. 4 (주)
- 교육 위원회 : 3. 4 (주)
- 전도 위원회 : 3. 4 (주)
- 교구 위원회 : 3.18 (주)
- 찬양 위원회 : 3.25 (주)
- 새 가족 환영회 : 3.25 (주)

이번주의 말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솔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개역개정판 시편 11장 3-4절)

When the foundations are being destroyed, what can the righteous do? The Lord is in his holy temple; the Lord is on his heavenly throne. He observes the sons of men; his eyes examine them. (Ps 11:3-4)

제1차 서울 신학 심포지움 강의 요약

제 1 강, 칼빈의 경건 사상과 영성

원종천 교수

1. 서론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는 경건의 실천"이란 말을 남긴 바 있다. 칼빈의 신학적 사고와 경건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오늘날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갈수록 경건과 영성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전해준다. 칼빈에 의하면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두려워하고 공경하며, 하나님의 의를 기꺼이 받아들여 하나님 거스르기를 죽기보다 무서워 할 뿐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지한 감정을 의미한다.

그것은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며 그분이 보여주시고 선포하시는 대로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며, 딤편 4:7-8의 주석과도 같이 "모든 열심과 능력을 다해 오직 경건에만 헌신"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요 중간이요 끝"이다.

II. 본론

칼빈의 저서 <기독교 강요>는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에게 드리는 헌사로 쓰여졌다. 그는 이 글에서 '참된 경건의 생활'에 대해 깊은 묵상과 가르침을 보여준다. 우선 칼빈은 이 세상의 경건에 대하여 비판적이다. 진정한 경건을 이 세상에서 찾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경건의 정의는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으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앎으로서 오는 것(강요 1:2:1)"으로 요약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은 경건의 결과이자 증거이며, 그것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때문에 자성기 죄를 인정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나, 무의한 의식들과 화려한 허식들로 자신을 기만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 경건 생활을 전적으로 외형적인 일에 두고 가짜 경배를 드리는 불경건은 모두가 사랑의 결핍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이다. 칼빈이 말하는 '진정한 경건'은 '이 신칭의의 토대 위에서 생기는 것이며, 자신의 이성의 한계를 알고 스스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얻어진다. 우리에게서는 자랑할 것이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러러보아야 한다는 것과 언제나 자신의 한계를 알고 적절한 한계 안에서 스스로를 유지하는 '겸손'이 바로 '진정한 경건'의 열쇠이다.

III. 결론

경건은 한 순간에 완전하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훈련함으로써 비로소 얻어진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그의 자녀들의 경건을 훈련시킨다.

칼빈은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다. 가건적 교회는 우리를 양육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교회에서 배우고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칼빈은 '교회를 통한 교육의 가치와 의무'에 대한 강조를 아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순간에 그의 백성을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지만 그들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옛날에 백성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땅에 교사를 세워서 천사의 직책을 진실하게 수행하도록 하신 것과 같이 지금도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신다(강요4:1:5)"는 구절은 현대 물질문명 사회 속의 교회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제 2 강, 청교도의 경건 생활과 한국교회

임희완 교수

1. 서론

청교도(the puritans, 淸教徒)는 17세기 영국교회와 가톨릭에 반대하여 교회를 정화하고 개혁하기 위하여 청교도 운동을 주도한 영국의 개신교 신자들을, 청교도 사상(puritanism, 淸敎主義)은 청교도들이 청교도운동을 주도하여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그들의 하나님 중심 사상, 성경 중심 사상, 신앙 중심 사상을 통틀어서 퓨리타니즘이라 일컫는다. 이 청교도 주의(퓨리타니즘)는 오늘날 모든 개신교의 산실(origin)이며, 오늘날 교회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장로교를 비롯한 침례교, 회중교회, 웨이커회,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등의 원류이기도 하다.

서양근대사회의 중요한 덕목들(절제·검소·직업소명감·개인의 독립정신·철저한 윤리준수 정신·경제적 자립정신·낙관적이며 전투적인 적극적 삶 등)을 낳은 청교도들의 경건 생활 청교도 혁명(영국혁명)과 서양근대화의 밑거름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II. 본론

청교도 경건 생활의 기초사상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좌표를 확인하는 과정의 꼭 필요한 단계이다. "참된 교회(a true church)"의 추구와 성경중심 사상(sola scriptura), 내면적·영적 세계의 추구, 청빈 생활의 추구, 계약 사상의 강조, 낙관적이며 적극적인 삶의 추구 등이 청교도들의 경건 생활을 이루는 주된 내용이며, 우리는 이러한 청교도들의 사상을 되돌아봄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린 경건과 영성으로 되돌아가는 지름길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초한 최초의 교회인 사도시대의 초대 교회로 돌아가려는 그들의 근본사상은 항상 모든 것들의 근원, 근본을 중시하는 사상으로부터 출발한다.

순교적이며, 영적 신앙,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려는 청순한 신앙, 오순절에 나타난 신앙 등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개혁운동은 근원(fons,

spring)으로 되돌아가려는 청교도 운동의 본질을 이룬다. 둘째, 신앙의 진리를 결정해 주는 최종의 권위는 오직 성경에 있다는 것이다. 교회의 예배의식을 통하여 구원을 강조하는 가톨릭의 교회 제도와 교황권 제도를 전면부정하고 성경만을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청교도들은 모든 생활의 근거를 종전, 나쁘긴, 작든 크든, 세속적이든 거룩한 것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근원 되었다는 사상을 가지게 하여, 결과적으로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심점으로 이들을 종합하고 통합하려는 사상을 낳게 하였다. 셋째, 가톨릭과 영국교회의 형식주의, 권위주의, 배타주의, 물질주의를 배격하고 인간의 내면과 마음, 영적 자발심(自發心)과 자원심(自願心)을 중요시했던 청교도들의 사상은 인간의 허례허식과 형식주의는 무의하며, 더 나아가 하찮은 일과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의 중요성을 일깨워 그것들의 실천을 통하여 더 크고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이를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였다. 넷째, 별거벗은 가난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청빈 생활의 중시는 기독교인의 외적 생활과 영적 내면을 낮은 데에 자리잡게 하여 결과적으로 겸손을 최대의 미덕으로 인식케 하였다. 다섯째, 하나님은 인간 개개인의 아버지로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를 맺어 주셨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약이며, 이러한 계약 사상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인간의 의무관계를 돈독케 함으로써 개인 상호간의 쌍무적 협정사를 발전시켜 급기야 기독교인들의 조화와 균형 및 중용의 사상을 가지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청교도들은 세상 끝날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치 한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얼핏보기에는 죄악이 성행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중국에는 선과 의인이 승리하고 말 것이라는 그들의 종말론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세상일들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낙관적으로 살아가려는 삶의 자세를 길러주었다.

III. 결론

기적, 병 치유, 통혼, 주 재림일자, 특정의 예배의식을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치부(致富)·건강을 신앙의 잣대로 추로 해석하거나, 안찰 기도를 강요하거나, 외형적 교회건물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교회를 사교장 정도로 간주하거나, 부자상속적 승계를 강조하거나, 패배주의적 삶을 강조하는 일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안 문제점들로 떠오르고 있다. 청교도들의 경건 생활은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암울한 상황과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고,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부딪혀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답안이 되어주고 있다.

말없는 성극 감동의 도가니

은혜로운 교회와 다정한 성도님들을 그리워하며

나종영 집사(4교구)

성삼위 하나님과 온 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베풀어주신 기도와 뜨거운 배려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실로 지난 3개월은 돌아보기도 싫은 악몽의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 1년 넘게 시행해온 복막투석과 함께 저의 몸은 갈습의 소모가 많은 가운데 썩은 고목처럼 쉽게 부서졌습니다. 그 사이 첫 번째 골절상의 수술(두 개의 발가락 제거와 정강이에 철심을 넣는)이 실패로 돌아간 뒤 다시 병원을 영등 세브란스로 옮기고 혈관을 타고 맹렬한 기세로 확산하는 원인 균(그람양성균)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 균에 강력한 항생제를 집중적으로 쏟아 부은 결과 마침내 원인 균을 발본색원할 수 있었습니다.

실망과 좌절의 함정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울 때 큰 용기와 소망을 북돋우시는 성경말씀과 찬송은 저의 흔들리는 믿음과 생각들을 재정립하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과 교회의 계속되는 기도를 힘입어 두 번의 수술과정을 통해 생긴 상처들은 일사천리로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입원 기간 중 수 차례에 걸쳐 받은 본 교회 당회장님의 기도와 성도님들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문해 주셨던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의 따스한 기도와 관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그간 90여일 동안 깊이를 알 수 없는 생존의 수렁에서 허우적대는 가운데 신실하신 삼위 일체 하나님의 동행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동안 찾아들던 어리석은 분노와 절망은 다시 소망으로 변하고 감사와 기쁨은 배가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하여 그 간 여러분으로부터 받은 지극한 고마움을 평생을 두고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그토록 그리던 새 성전에서 여러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드릴 날을 학수고대하며 거듭 감사드립니다.

성극은 대사가 필수적인 요소다. 말씀 없이 성극을 진행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주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없는 성극을 보면서 감동의 도가니에 휩싸였다.

지난 18일 오후 6시30분 본당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 극단 밖모 섬의 수화 뮤지컬 "침묵의 소리".

예수님의 일대기 가운데 성도들에게 가장 깊은 감동과 은혜를 주는 탄생과 죽음, 부활의 대목만을 골라 꾸민 뮤지컬이다.

이 성극에서 대사는 거의 필요 없다. 농아들을 대상으로 한 성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아들만 이해할 수 있는 뮤지컬은 아니다. 농아들만을 위해 만든 뮤지컬은 더더욱 아니다.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누구나 공감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바로 이것이 이 뮤지컬이 선교의 도구로 충분한 이유기도 하다.

모두 6장으로 나뉘어진 이 공연은 예수님의 오심, 세례요한 이야기, 갯세마네 동산, 십자가의 고통, 우리 상처의 치유, 부활 뒤 말씀의 순서로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천사로 분장한 꼬마들부터 예수님으로 분장한 정택진 극단 대표까지 모두 13명이 출연했다. 이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혈루병 여인, 수가성 여인, 세례요한 등 예수님과 더불어 많은 사연을 만들었던 인물들이 포함돼 있다.

연출을 맡으신 김옥겸 집사는 우리 교회에서 자주 성극 활동으로 섬겨오신 분이시기도 하다. 김 집사는 "지난 1985년에 시작된 수화뮤지컬은 그 동안 2000회가 넘게 공연을 해왔고 이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됐다"고 고백한다.

이날 공연은 서울교회 에바다 부의 홍성주 집사를 비롯한 여러 교사들의 봉사로 500여명이 넘는 관객이 모였다.

미처 오는 길을 찾지 못해 아쉬운 발길을 되돌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정도였다.

성극을 보러왔던 관람객들은 은혜 충만한 뮤지컬과 함께 행사 뒤 교회에서 마련한 다과회에 참석해 사랑 넘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교회 에바다 부는 매 주일 1시부터 본당 603호에서 수화교실을 갖는다.

밀알 선교원 홍유미 간사가 지도하는 수화교실에는 많은 농아인들이 참석해 은혜의 시간도 함께 나누고 있다.

농아인 선교를 위해 뜨거운 기도와 에바다 부에 대한 아낌없는 후원이 절실함을 이날 공연을 통해 성도들은 확인할 수 있었다.

김민철 < 편집부

성극의 한 장면 - 마리아의 수태고지



밀알수화찬양단의 찬양



새로 왔어요

눈물로 새벽제단을 쌓으며

조동완 집사, 이승희 권사(1교구)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8층 만나 홀에서 새가족부 모임을 마치고 나온 두 분을 만났다.

반포동 옛 예배당 시절부터 서울교회를 다니다 입당 예배 후 첫 주에 등록을 하고 줄곧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모범 새가족 가정이다.

「교회가 집 앞에 세워진 것은 새벽제단을 계속 쌓으라는 뜻이겠지요. 요즘은 새벽 3-4시만 되면 일어나 새벽 기도회를 기다립니다.」 결혼 전 조 집사에게 예수 믿기를 결혼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이 권사의 말이다.

조 집사는 2월초 교회 실업인 선교회에 참석하여 이종운 목사님과 기도카드를 교환한 후 목사님의 기도제목과 매일 기도하게 되었고 그날부터 함께 새벽제단을 쌓게 되었다고 한다.

「2년 반 동안 여러 교회를 방황하다가 서울교회에 할 일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새 가족부에서 6주간의 교육만 마치고 봉사하라고 권하였지만 많은 분들과의 만남이 좋아 12주를 다 마치고 봉사부서를 정할까 합니다. 몇 주전에 같은 아파트에서 등록한 새가족을 집으로 초청해 만두를 빚어 먹으며 새가족끼리 정을 나눈 적도 있어요.」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했던 두 분은 앞으로는 자신들을 위한 봉사를 지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봉사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한다. 매주 금요일에 있는 새가족 다락방에 참석하여 성경공부와 기도교제에 참여하고 싶으나 직장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30분 늦어 '갈 같이 시간을 지키는 서울교회'에서 임무를 못내 아쉽다고 한다. 「부족한 돌봄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는 두 아들(건영, 일영)과 안정적인 사업과 좋은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새벽제단에 처음에는 은혜의 눈물을 요즈음에는 감사의 눈물을 뿌립니다.」



조동완 집사님, 이승희 권사님

우리부서는

청년부

이대중

할렐루야!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주님의 용사로 부름 받은 저희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이가 로마의 용맹스런 한 장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십니까?" 그는 간단히 "Glory of Rome:로마의 영광"을 위해 싸운다고 답했습니다. 저희 청년부에게 주님께서 같은 질문을 허락하신다면 "Glory of Lord: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한다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주님 백성 아니 군병인 청년부의 올바른 그리고 유일한 명령이며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청년부는 주일3부 예배 후에 601호실에서 말씀과 천국교제의 잔치를 나눕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오직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요" 젊은이가 더럽고 추악한 죄의 울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며, 주야로 생명의 말씀 묵상과 성경공부를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회원은 7개의 조별공부인 G.B.S로 나누어 '소요리 문답'을 교재로 공부하고, 이들과 말씀을 나눌 조장들은 먼저 앞서 기도하며 공부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여 매주일의 풍성한 말씀의 잔치를 준비합니다. 또한 새로운 리더 양성을 위해 12주의 청년부 L.T.C 과정을 연3회 운영하고 있고, 새신자의 눈높이에 맞는 새가족부 성경공부과정도 운영하여, 모든 회원이 각자의 신앙수준에 맞는 교육체계에서 생명의 양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어디를 보고 찾아도 밝고 깨끗한 곳은 찾기 어려운 이 시대에 '남은 자로 택함 받았다는 소명을 바로 알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려는 청년부의 다짐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저희 청년부는 주님의 십자가를 전파할 귀한 젊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고 고백하는 젊은이가 되겠습니다. 둘째, 이 젊음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곳에 바르게 사용하여, 좌로나 우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젊은이가 되겠습니다. 셋째, '가능성'이라고 표현되는 청년의 때에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주님 안에서 키워 가는 젊은이가 되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만이 홀로 받으시고, 2001년 한 해 동안 추수할 곡식도 많고 일할 주님의 일꾼도 많은 멋진 주님의 아들-딸 되기 소원합니다. 아멘!



청년부 G.B.S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한다.

수련회를 통해 되찾은 신앙과 사랑

이준영(대학부)

수련회 셋째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나는 분명히 달라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내가 잠들었던 방... 거닐던 복도... 그리고 계단...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낯의 것이 아닌, 바로 나의 교회로서, 그 공간들이 아늑하게 다가왔다. 더욱이 이틀간의 수련회 기간동안 되찾은 신앙에의 열정과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도 벽차게 다가와 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마치 수련회를 통하여 나의 오랜 고난이 끝을 맞이한 듯이... 지난 밤 서스름없이 서로를 껴안고, 기도해주고, 교제를 나눈 모두는 하나같이 사우나에 다녀온 사람들처럼 피곤해보였다. 그러나 불과 3일전까지 말발이가조차 어려웠던 이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낮선 나를 허물없이 받아주고 이해해준 그들에게 감격했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이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신 당신께 감사드리는 바이다. 마지막 예배가 끝나고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종이위에 적어 나가며, 그 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돌이켜 보았다. 서로를 향한 용서와 신뢰와 사랑... '우리' 라는 이름 안에 날 동참시켜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이번 수련회 기간동안 되찾은 나의 신앙과 신뢰를, 대학부의 여러 사랑스런 지체들과 오랫동안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스테반회 수련회를 가진다.

스테반회는 2월28일 수요일 예배 후 오후8시30분부터 익일 새벽까지 701호실에서 "새 예배당 시대의 스테반회 역할과 자세"를 주제로 이종윤 목사님의 특강과 workshop 그리고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다지는 친교의 시간을 갖기로 하였으며 부부회원 모두가 참석한다.

2월 새가족 환영회

2월중 등록한 새 가족들에 대한 환영회가 오늘 찬양예배시 거행된다. 환영대상자는 이우태 성도와 45명이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6일 (월) <미래한국> 주간신문 발간인 대회에서 설교한다.
- 신순우 집사 (4교구)는 26일 경원 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 정성국 전도사, 성기원 성도 특녀.
- 조월기 집사(6교구) : 배추 120포기 기증.
-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이종윤 목사, 홍순복 사모 (1교구)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교회 입당감사와 축계위원회10대행사를 위하여
2. 새로 등록하는 가정 정착할 수 있도록
3. 농어촌100교회 운동을 통한 복음의 열매 맺도록
4. 온 교회 성도들이 주일 성경공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일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